제4장 요한의 증언

1. 요한복음의 특이성

1) 공관서와의 관계

이미 지적한 대로 ‘복음서’라는 문학적 유형은 마르코에서 새로 창조된 것인데, 요한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복음서임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예수에 관한 글이라는 의미에서 일찍부터 다른 편지들과 구별하여 복음서라고 불리게 됐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에도 세례자 요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체포,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부활한 설화로 끝나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같다. 그러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복음서에 인용된 자료들과 다분히 다른 자료들이며, 또 예수가 활동한 순서도 아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찍부터 다른 세 복음서와 구별해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문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세 복음서는 ‘공관서’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고유한 것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성서를 주의깊게 읽는 사람은 공관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선 공관서의 예수는 공생애 중 예루살렘의 1주년을 빼면 갈릴래아 지방에서 보냈는데, 요한의 예수는 적어도 세 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요한 2, 13·5, 1·7, 10). 그중 7장 10절에 예루살렘으로 간 기록을 주목하면 장막절(7, 2)에서 수복절(10, 22)을 거쳐 그의 죽음을 가져온 해방절까지 머문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기간은 적어도 반 년이 넘는다. 그 사이에 예수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숙청부터 하는데, 이것은 그의 생애 맨 나중에 하는 공관서의 예수와는 다르며, 또한 공관서에는 해방절이 한 번만 나온다. 공관서에 따르면 그의 공생애는 1년이 못 되는데, 그가 제자들과 익어가는 밀밭 사이를 지났다는 기록(요한 2, 23)을 연대측정의 자료로 이용할 경우, 요한의 예수는 적어도 2~3년의 공생애를 보낸 것이 된다. 까닭은 그의 공생애 중 확실하게 두 차례의 해방절을 지켰기 때문이다(요한 2, 13·6, 4).

공관서의 예수의 행태에서 중요한 것은 병을 고쳐주는 것인데, 특히 귀신 쫓는 얘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요한의 예수는 귀신추방을 한 일이 한 번도 없고 가파르나움의 한 관리 아들을 치유한 일(요한 4, 46 이하), 5천 명을 먹이는 기적과 바다 위를 걷는 기적(요한 6, 1·16 이하) 외의 다른 것은 없다. 위에 예로 든 공동자료도 공관서의 것과 비교하면 그 치유하는 일 자체에 관심의 초점이 있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그것을 행한 이, 즉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집중한다.

그리고 공관서에 없는 기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나의 잔치에서 한 기적(요한 2, 1 이하), 베짜타의 연못가에서의 치유(요한 5, 1 이하), 소경 치유(요한 9, 1 이하) 그리고 죽은 나자로를 살려 일으키는 이야기(요한 11, 1 이하)가 있는데, 모두 긴 이야기로서 역시 그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계기로 '예수가 누구냐'를 해명하는 것에 치

중한다.

또 제자를 부른 얘기가 있으나 공관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과 서술이며,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니고데모(요한 3, 1 이하), 사마리아 여인(요한 4, 1 이하), 음행하다 잡힌 여인(요한 8, 1 이하, 이것은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과의 만남 등 공관서에서는 볼 수 없는 집중적인 개인접촉의 예이고, 이러한 개인접촉의 예가 공관서와 비교해볼 때 요한복음에서는 두드러진다.

요한의 언어는 공관서의 그것과 판이하다. 공관서의 언어는 수난사를 빼면 단편적 얘기로 점철되어 있다. 한 가지 길게 서술한 것은 세례자 요한의 처형과정 이야기 외에는 없다. 그 짧은 단편적인 이야기 속의 예수의 말씀은 대부분 전개가 없는 한마디씩이다. 이에 대해서 요한의 언어는 주제적이며 전개적이다. 그 전체구성으로 보면 크게 두 주제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12장 50절은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예수를, 13장 1절~20장 29절은 그의 아버지(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예수를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1장 1~18절에 그의 특유의 서문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의 활동의 장은 파노라마적이 아니라 몇막의 연극무대를 조명하듯이 집중적이다. 세례자 요한의 증거,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베짜타못에서 일어난 사건에 연유된 토론, 5천 명을 먹인 후 계속 전개되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 소경을 싸고 일어난 유대인과의 소경론, 나자로의 죽음을 계기로 전개되는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의 대화 등은 각기 평균 한 장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며, 14장부터 17장까지는 유명한 고별설교가 전개된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공관서에서 볼 수 있는 그 많은 특유의 비유들이 요한에는 단 하나도 전승되지 않고 있으며, 흔히 비유라고

해서 선한 목자 이야기(요한 10, 7 이하)와 포도나무 이야기(요한 15, 1 이하)를 드는데, 그들은 공관서에 보는 비유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체로서 이 이야기의 성격을 표시한다면 상당히 지적이며 사변적인 언어로서, 결코 민중언어는 아니다.

2) 요한의 정신적 풍토

도대체 요한복음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씌어졌는가? 요한 기자는 공관서를 알고 있었는가? 이런 물음이 그 정신풍토를 묻는 것과 관계된 것들이다. 요한은 마르코를 알고 있었으리라는 짐작이 우세한데 그것은 위에서 본 대로 큰 테두리가 같으며, 그리고 그 안에 언어상 단어까지 꼭 같은 것을 여러 곳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은 루가를 알고 있었다는 흔적도 뚜렷하다. 마리아, 마르타의 성격묘사(나자로의 죽음 얘기에 비친 마리아와 마르타의 성격과 루가 10, 78 이하의 두 사람 비교), 그리고 요한 13장 2절, 27절=루가 22장 3절, 13장 38절=루가 22장 34절, 18장 10절=루가 22장 30절 등에서의 공통성, 무엇보다도 예수에게 기름붓는 마리아의 이야기(요한 12, 3 이하)는 루가 7장 36절 이하와 마르코의 것(14, 3 이하)을 결합한 흔적이 뚜렷하다. 만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대로 그가 루가복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 복음서는 빨라도 A.D. 1세기말 이전에 씌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마르코와는 적어도 70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왜 공관서의 예수의 자료들을 기피했을까 하는 것이다. 전에는 요한은 공관서에 누락된 것만 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네 복음서를 종합, 재편집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한갓